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새생명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같은 사건의 양면이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신화라고 생각하고 부인하기도 한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지만 '부활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제17주일은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기보다는 부활의 '유익'에 대하여서만 가르친다. 이러한 모습은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을 (1) 우리의 칭의, (2)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 (3)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가르친다. 과거 시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고, 현재 시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며, 미래 시제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우리의 믿음

현대인들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는 없다고 여

기고서,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의가 승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소위 부활의 의미라는 것도 공허할 뿐이다. 무덤에 묻혀 계시지만 한 예수님이라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고, 따라서 그분의 교훈이나 모범 또한 여전히 무덤에 묻힌 것일 뿐이다.

이처럼 부활의 사실이 없이는 부활의 의미도 없다.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 주시고 40일 동안에 열한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 (행 1:3), 천사도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 28:5-6)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고, 제자들은 그저 숨어 있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인봉하기를 청하였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부활의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눅 24:22-24). 그들은 여전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고(눅 24:25), 주님으로부터 구약을 통해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주님의 축사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눅 24:31-32).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부활의 사실만을 증명하려는 것은 결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부활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사실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도 없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자가 새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부활일 뿐, 몸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따라서 사람의 부활도 사실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고전 15:17)이라고 가르쳤다. 이렇듯 우리는 종종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릇된 이분법의 성향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다. 45문을 보더라도 부활의 ‘유익’을 묻고는, 그 대답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사실’부터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라는 ‘사실’의 단순한 진술 안에서 부활의 ‘의미’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칭의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1)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행 2:24).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지상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을 법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의롭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40문) 그의 부활도 요구하였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사망에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행 2:24). 이 점에서 부활은 완전한 순종을 하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칭의의 선언이다.¹⁾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얻으신 일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다. 바울 사도는 경건의 비밀을 찬송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딤후 3:16)고 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을 이야기했고, 그 중간에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할 때에,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신’ 시기는 다른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셨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롬 4:25)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의 의롭다 하심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성은 그 밖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 제사장이 나와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였다. 바르게 드린 제사의 효과가 그 백성에게 미쳤던 것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실체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다(요 20:19). 죄가 있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강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리셨고 그 결과로 의를 얻으셨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의를 얻으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순

전히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부활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롬 4:25).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벧전 1:3).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새로운 생명(성화)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다(롬 6:10-11).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처럼, 신자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생명이신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 신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마 22:32; 막 12:27; 눅 20:38).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신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얻은 새로운 생명은 다른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것처럼 바라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내 드러났고, 신약의 신자들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의 삶은 원칙상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 죄 사함을 받고서도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죄의 책임과 그 세력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둘 중 하나만 취할 수는 없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한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새로운 생활을

1. 1) R. B. Gaffin, Jr., Resurrection and Redemption, pp. 119-124.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새로운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태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분을 본받도록 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아 그 형상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는 더욱 삼위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간다.

사도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엡 5:1)고 교훈을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데서 나타나며(엡 5:3)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서 나타난다(엡 5:8-9). 이처럼 새로운 생명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영화)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와 연합한 자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여기에서 보증이라는 말은, 첫 할부금을 내고 물건을 쓰는 것과 같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므로, 그분께 속한 사람도 부활에 참여한다(고전 15:20). ‘첫 열매’란, 결실한 밭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셨으면 이것은 전체를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면 그분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부활한 것이다. 신자의 부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확실한 실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이 모두 마칠 때에, 마침내 신자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이 모든 것이 완성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한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살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아는 것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다(고전 13:12).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요일 3:2).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은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살리셨고(행 2:24; 롬 4:25), 성자께서는 부활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셨으며(롬 1:4; 14:9; 요 10:18), 또한 성신께서도 주님의 부활을 위해 일하셨다(롬 8:11).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포함하는 구원의 일을 이러한 부활로써 온전히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도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칭의와 거룩한 삶, 장래의 부

활과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으로 가르친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그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나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로서는 시간 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에 골몰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시선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생명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 3:1-3).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간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려진 자로서 산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자들은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골 3:4).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처럼 '산 소망'이 있다(벧전 1:3).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산 소망'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도 진리로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시 73:24).

신자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운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요 5:29; 단 12:2; 계 20:13-14).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나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두셨기에, 어떤 때는 신자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러한 쓰임을 받는 자의 마음은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는 자기 가 무슨 일을 한다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숙한 사람을 써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 이러한 성숙성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판단하면 안 된다.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를 알려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세상에서 가려졌을 때에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뭔지 모르게 불안한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가려진 사람은 장차 큰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지금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